



사진 : 경훈모 알렉시오 신부(동항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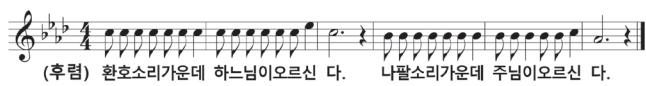
입 당 송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 1 독 서 사도행전 1,1-11

화 답 송 시편 47(46),2-3.6-7.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1.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2.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3.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 독 서 에페소서 1,17-23

복 음 환 호 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루카 24,46-53

영 성 체 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2022년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1)



1985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주일’이 올해로 3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주일은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사랑과 정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자라도록 북돋아 주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려는 교회가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교회의 다짐이 담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의 삶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펼쳤던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1.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는 <한·일 주교교류모임>이 2018년 11월, 의정부교구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청소년 사목’이었습니다. 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고, 주제에 대해 그룹별로 토의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교회의가 자국의 청소년들과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청소년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신앙적, 사회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교님!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

다. 제 귀에는 그들의 말이 절규로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보다 자괴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교회 월간지에서 읽은 한스 쿡(1928-2021년) 신부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스 쿡 신부님은 휴가 때이면 자기 고향인 스위스 수르제(Sursee)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휴가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 성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영적인 삶으로 충만했는데, 지난 20년 이래로 해마다 주일미사 참례자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몇몇 노인들만 보일 뿐이다. 본당 신부도 늙었고, 몇 안 되는 신자들도 늙어서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때부터 20여 년 전 오스트리아 빈 대교구의 사제 숫자는 교구 사제와 수도회 사제 합쳐서 모두 1,400명이었고, 주교는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때 사제는 800명으로 줄었고, 사제 평균 나이가 60을 넘었습니다. 사제가 자연사하거나 그만두는 숫자는 한해 40명을 웃도는데, 새로 신품을 받는 사제 수는 3명 정도일 뿐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교회가 참으로 주저앉고 말겠다’고 생각한 한스 쿡 신부님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망해가는 데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2011년 말에 「교회, 아직도 구제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목정보 2011년 11월호, 전현호 신부 글; 샘물 2011년 겨울호, 최홍운 글 참조)

청소년 주일을 맞아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특별 기고문을 2주간 연재합니다.
주교님의 글을 통해 우리 교구 청소년 사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모임 이후에 저 역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구로 돌아와서 청소년사목국 신부님들과 여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교구 사목의 방향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구 사목 지침으로 『청소년의 해』로 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북병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 청소년 사목은 얼마나 위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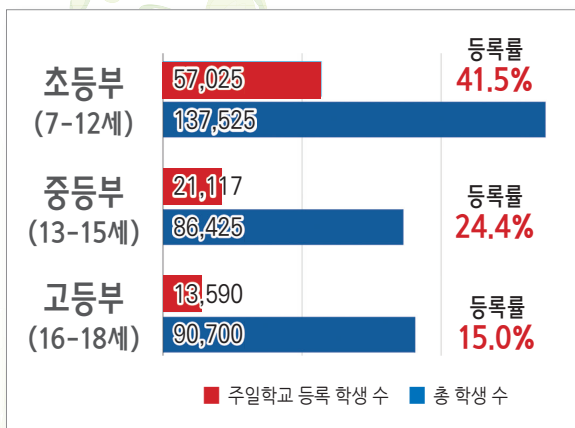
교회에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벌써부터 들려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톨릭 청소년 사목이 위기’라는 말도 자주 들려옵니다. 먼저 오늘날 청소년 사목이 얼마나 위기인지 <2021년 한국 천주교회 교세 통계>와 <2021년 부산 교구 청소년사목지표>의 통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두 통계에 따르면 29.1% 학생만이 나름대로 신앙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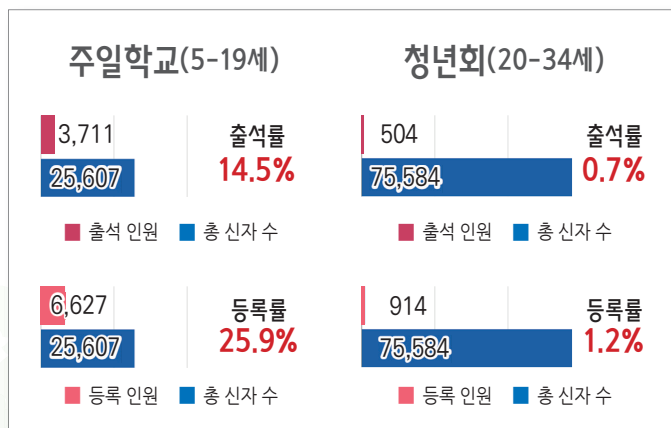
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70%가 넘는 청소년들 혹은 이들의 보호자나 부모들에게 소홀히 여겨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과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어렵지만, 청년(20-34세)들의 신앙 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사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없으면 그 존재부터 불확실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재’로서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그동안 각 교구마다 어려워지는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모로 연구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재앙을 겪으면서 교회 전체뿐 아니라 청소년 사목 분야는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2021년 한국 천주교회 교세 통계> 자료



<2021년 부산교구 청소년사목지표> 자료



겸손과 자기비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 체험은 모자라고 부족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승천 사건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겸손과 자기비움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하느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다시금 연결시켜주셨다.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리고서는 자신은 뒤로 물러나신다.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려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역할로 만족하시고 더 욕심내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신다. 대

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 이같은 주님의 한없는 겸손과 자기비움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성령인 것이다.

세상의 어느 누가 자신의 자리를 이처럼 선뜻 내어줄 수 있겠는가? 권력의 최상위를 차지하려고 누군가를 짓이겨야 하고, 한 번 쥐어진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아귀다툼하는 처절한 세상이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악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고 빈자리를 내어놓으신다. 일생을 사랑과 겸손의 한결같은 삶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자기비움’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 내 것만을 움켜쥔 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

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비워낼 때 가능한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참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살 때 가능한 것이다.

사랑을 위해 나 자신의 목은 껍질을 벗는 아픔을 때로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빈 공간을 사랑의 열매인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자. 그것이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길임을 기억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김종남
스테파노 신부
거제동성당 주임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5.30(월)~31(화)
김종남 신부(거제동성당 주임)
6.1(수)~4(토)
김병조 신부(사회사목국 부국장)

청년 서포터즈 모집
지원자격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청년 누구나
접수기간 5.30(월)~6.10(금)
•지원서류 : 이력서, 자유 형식의 짧은 자기소개서,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유튜브 프로그램 중 1편 선택 모니터링
•주요활동 : 월1회 방송모니터링, SNS 홍보물 아이디어회의&제작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rororo1999@hanmail.net)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당신과
우리의
더큰 울림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

찬미예수님!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을 아껴주시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친교와 화합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는 동안 저희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은 미사와 특강, 성가와 선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과 소

통하며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저희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은 평화의 사절이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활동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합니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은 전 세계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세상의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발을 내딛는 합창단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울산 지역의 난청 해소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추진되었던 **울산중계소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를 취득하여 7월 중 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계소 이전이 완료되면 울산 지역 주파수는 기존 94.3MHz에서

93.7MHz로 변경되고, 중계소는 성안동 함월산에서 **화봉동 무룡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울산중계소 이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교구민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저희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임직원 모두는 선교 매체 종사자로서 복음 선포의 사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여겨 듣고 함께 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사랑에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총괄국장

후원회 계좌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부산은행 041-01-029607-2

농협 917-01-175333

ARS 후원

060-700-2340 (한 통 5천원)

060-700-7004 (한 통 1만원)

개국 22주년 슬로건

당신과 우리, 더 큰 울림!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신앙 여정의 따뜻한 동행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오전 11시] 진행 : 김다정 데레사

이름만큼 정 많고 따뜻한 새내기 동행 김다정 데레사 아나운서!
힘들 땐 위로를, 외로울 땐 친구가, 심심할 땐 수다와 웃음을 드립니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콩트로 만나는 <가성비 굿>,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산책>이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로 함께 하는 시간. 월-금 오전 11시에 만나요!



즐거운 오후 찾기! 다~ 오는 라디오!

다정다감다섯시

[월-금 오후 5시] 진행 : 김현지 리나

행복한 오후를 즐기고픈 이들이 다~ 아는 라디오!
신박한 방과 후 퀴즈와 문화, 여행, 의학 등 꿀 정보로 다~~ 즐거운 시간!
팟빵으로도 다~~ 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월-금까지 오후 5시에는 다다다에 다다다 놀러오세요!



신부들의 수다

[토 오후 1시]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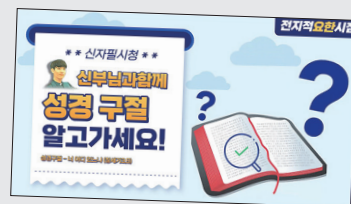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더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녹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생녹방' 절찬 진행 중!
유튜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채널 커뮤니티란에서 신수다 생녹방
일시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신부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가능합니다.



부산cpbc
유튜브 바로가기



2022 사랑나눔 칭찬릴레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김수진 신부의 전지적 요한시점





부산가톨릭평화방송과 청취자가 소통하면서 선교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더 가까이, 더 크게 울릴 저희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국방송! 매주 화요일 두 시간~~ 즐길 준비 됐나?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화 오후 12시 15분]
진행 : 표용운 신부

부산스런 웃음 코드! 화요일의 전국방송 DJ, 부디! 표용운 다미아노 신부를 드디어~ 두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수~~!! 짹짹!! 늘어난 시간만큼 즐거움도 두 배!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은 <신의 직장> 콩트와 성경구절로 해결!
엉뚱한 호기심은 <부산의 알고리즘>으로 해결!
부산신신우신 듣는 부산교구 교우들, 애살있네~!!



찬양으로 하느님과 하나되는 시간,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금 오후 2시] 진행 : 이재석 신부(부산cpbc 총괄국장)

별명 부자 커플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와 박소정 알비나가 선택한 성가와 함께 하는 <그녀의 선택>, 찬양사도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매주 콘서트 현장을 선사하는 <우리 찬양사도> 등 찬양으로 주님 사랑에 흠뻑 빠져 보는 시간!
금요일 오후 2-4시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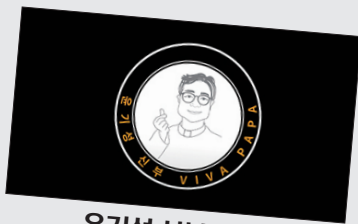
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이 흐르는 곳!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일 오후 9시]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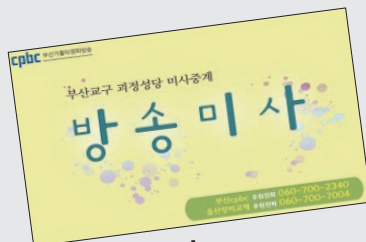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주일 밤을 선사하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이 일요일 밤 9시에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가 선사하는 클래식 이어,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연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뮤직 마이스토리>까지! 주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캘리 뽀GO이치다



윤기성 신부의 비바파파



방송 주일미사



오늘의 강론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신입단원 모집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함께 노래로 찬미 찬송하는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축복받은 아이들의 찬미로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울려 퍼지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과 노래를 사랑하는 어린이 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추후 공지)

자 격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의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 (2022년 첫 영성체 예정자)
제출서류	입단지원서(부산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1매(입단지원서에 첨부)
원서접수	6월 13일부터 (오디션 방법과 일정은 추후공지) 우편 :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이메일 : bscpsc@outlook.com
주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정기 공연 • 각종 교구행사 • 각종 합창제 참가 및 국내외 초청 공연 •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행사 • 본당 초청공연
문 의	051-600-8800 ▶ 홈페이지(www.pbcbs.co.kr) 공지사항 참고



군중후원회 창립 50주년 맞아

교구 군중후원회(지도: 강인구 신부, 회장: 성육 바오로)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5월 21일(토)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와 군중교구장 서상범

주교의 주례로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 후 기념식에서 30년 장기 후원 회원 53명과 20년 이상 봉사한 회원 13명, 역대 회장들에 대한 감사장과 공로장 시상이 있었다. 전임 회장 이강석 미카엘(남천성당) 씨는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군장병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줄 때 기쁨을 느꼈다.”며 “50년간 뒤에서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호계성당, 우정성당 주일학교, 사순 헌금 기부 실천



호계



우정

호계성당과 우정성당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순 시기 동안 고사리손으로 용돈을 절약해 모은 헌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호계성당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

난 5월 14일(토) 울산대리구의 ‘빛·소금 의료지원 운동’에 사순 헌금 77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우정성당 초등부 학생들은 같은 날 아프간 난민 통역 활동을 위해 53만 원을 기부했다.



울산대리구 생태환경특강

울산대리구(대리구장: 김영규 신부)가 주관한 ‘생태환경특강’이 지난 5월 2일(월) 복산성당에서 있었다. 16개 본당 생태환경분과와 여성 제 단체에서 참여한 이번 특강은 울산철새홍보관장 박창현 프란치스코 씨의 ‘태화강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공동의 집 들보기

실천적 상대주의

- 122.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는 그릇된 생활 양식을 낳습니다. ...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 이 모든 것에는 다양한 태도들이 서로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환경 훼손과 사회의 부패를 낳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 123. 상대주의 문화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빛을 명분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과 다름없는 질

병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익에 보탬이 안 되는 노인을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경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내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22항~123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122항~123항 영상 보기
낭독: 부산가톨릭선교마라톤회 조길형 바오로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빨래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 세탁기에 돌리고, 가벼운 빨래는 손으로 합니다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는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루카 24,47c)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보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도 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신자앱’ (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가능!!)

- ▶ 상금 : 30만원
- ▶ 접수마감 : 6.5(일)
- ▶ 참가방법 :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



바로가기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 6.3(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 남천성당 대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예비신학생 월모임
고1 : 6.5(일) 10:30 교구청 2층 성소국
문의 : 629-8760(성소국)

본 당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 10:00~10:50 화, 목반/수, 금반
중급반 : 11:00~11:50 화, 목반/수, 금반
회화반 : 12:00~12:50 화, 목반/수, 금반
· 6.5~7.31 / 문의 : 010-8501-9250

기관·제 단체·위원회

가톨릭음악협회 성음악후원회 감사미사
· 5.30(월) 19:30·가톨릭신학대학 대성당
연주 : 부산시니어커리파스
주례 : 임석수 신부 / 문의 : 010-2084-3903

성모올타리공동체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 5.30(월) 10:00~18:00 · 양산성당
파견미사 : 장재봉 신부
출연진 : 장재봉 신부, 윤원진 신부, 김완식 선교사,
고영민, 손현희, 김정식, 송봉섭, 신상옥
문의 : (055)367-2232

부산가톨릭마라톤회 행사 안내
[제16회 창립기념행사]
· 6.11(토) 09:00 ·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마라톤훈련]
· 1, 3, 5주(토) 동백섬 / 2, 4주(토) 대저생태공원
[정기산행] · 매월 1회 영남알프스 산행
문의 : 010-3860-972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16일~5월 22일] 소계 : 50,000원 모금 누계 : 943,249,334원

이보람 50,000

사용 누계 : 751,667,700원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 191,581,634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게재 기간 2022년 7, 8, 9월 (3개월)
- ▶ 접수 5월 30일(월)부터 선착순 / 이메일 (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액 1회 6만원(기부 3회 18만원)
- ▶ 서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 광고신청서 다운로드 : 교구 홈페이지 - 우측 '광고신청서' 배너 클릭
- ▶ 문의 629-8752

<p>오두종성형외과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 오두종(오한) 805-0200 카톡상담 ID : 오두종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타워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50년 전통 명신당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로로) 김영란(제노베파) 010-3599-7885 646-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보철틀니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2번 출구 80m</p>	<p>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법무법인 대한중앙 (사무실 확장·이전)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민(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외우빌딩 2층</p>	<p>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p>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곳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범내골역 2번 출구 앞 제2형운병원 4층</p>	<p>온정성치과의원 구강외과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기치아 살리기, 고난이도 임플란트 원장. 임혜연(막달레나) 지하철 수영역 2번출구 50m 직진 다이스 맞은편 3층 932-2828</p>	<p>이상열마취통증의학과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지하철 1호선 구서역 1번출구 앞 원장/전문 의 이상열(베드로) 516-0888</p>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 6.1(수) 13:00~15:00
-금요일미사 (성령강림의 밤)
· 6.3(금) 20:00~22:30
강사: 장훈철 신부(장유성당 주임)
-젊은이 기도회
부산: 6.13(월) 19:30 전포성당
울산: 6.8(수) 20:00 대리구 별관
-468차 교구성령목상회(일반)
· 6.24(금) 18:30~26(일) 17:30
회비: 18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울산 성령기도회
· 6.2(목) 19:30~21:30

베아파그레고리오성기단 창단 22주년 기념미사

· 6.12(일) 10:30 · 복산성당
단원모집: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울산거주 남녀
문의: 010-6562-0577(단장)

음악교육원 오르간 반주자 교육생 모집

대상: 오르간 반주를 원하는 이 누구나
교육방법: 주1회 개인레슨 (초보가능, 상시등록)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 문의: 519-0474

파티마의세계사도직 646-3746, 010-6764-3746

- 첫 금요일 미사
· 6.3(금) 20:00 (미사 21:00)
- 첫 토요일 신심 미사
· 6.4(토) 11:00
내용: 어린이 및 가정 봉헌식 및 갱신 있음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월피정
· 5.30(월) 13:00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경당
강의 및 미사: 김태형 신부(카프친 수도회)
- 연합 썰 대피정
· 6.27(월) 13:00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경당
미사주례: 신희철 주교
대상: 파티마의세계사도직 회원 및 관심 있는 분
주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6.3(금) 10:30 · 남천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부산교구 청소년사목

주님 승천 대축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
내용: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010-4539-3101(수~토 10:00~17:00)

대구성령쇄신봉사회 성령강림절 대 피정

· 6.4(토) 10:00~17:00
· 월막피정의 집(대구성령쇄신봉사회 회관)
강사: 오전 이영숙 수녀, 오후 윤원진 신부
미사: 대구대교구 총대리 장신호 주교
문의: 010-9045-0191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 6.11(토) 10:00~17:00
문의: 010-8682-4237(정 이시아 수녀)

청년 5.18 순례캠프

주제: 남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
대상: 청년 신자 / 자세한 내용, 기간,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gnpf.or.kr) 참조
문의: (062)234-2737(광주인권평화재단)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합인: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 6.13~15, 7.3~5, 7.8~10, 7.23~25,
7.31~8.2, 8.6~9, 8.13~16, 8.20~22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피정
자연순례: 6.20~22, 7.21~23, 7.30~8.2
성지순례: 6.4~7, 6.12~15, 9.3~6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Holistic 마음치료 프로그램 교육강좌
(영성심리상담 강좌 단기과정)**

· 5.31(화)~11.29(화) 14:00~17:00
과목: 영성과 심리상담, Micro Counseling 기법,
심리검사, 가족상담, NLP치료, 집단상담, 실습
강사: 조옥진 신부 및 이상훈 교수(상담심리학박사)
등록금, 수강자격: 25만원(마스크착용, 백신접종자)
특전: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수련인정
문의: 463-7866, 010-6742-0106(명륜역 2번 출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7.6.1.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2008.6.3. 최재선 (요한) 주교님
--------------------------------	--	--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6.5(일) 10:00	서울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6.11(토) 14:00-12(일) 13:00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평신도·수도자를 위한 신학 석사과정 후기 모집**

원서접수: 5.30(월)~6.10(금) 17:00 (온라인 접수)
면접고사: 6.23(목) 예정
모집요강: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519-0441~2 graduate.cup.ac.kr

코로나19 일상회복 케어 센터 운영

‘코로나19 후유증 증상 메리놀병원에서 극복하세요’

메리놀병원TV 정형외과 조세현 병원장

“관절염 예방,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465-8801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벳파)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호·주름개선	김용기내과의원 [총무동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일산자동차매매상사 매매·교환·위탁·페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베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테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뉴욕초이스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틀니 미국임플란트전문 최상종 치의학박사 866-2806, 2807 지하철 연산역 5번출구, E메디컬센터 5층	커넥트프랩 대연점 공단기 관리혁동서실 (마스터플랜 수확학원)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 010-4475-3119 네이버 검색: 커넥트프랩 대연점
법무법인 울강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회생, 파산 및 각종법률상담 상담료는 20분에 5만원이나 신자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 부탁드립니다. 717-2570, 010-7455-1031	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네스)	대신동 김스피부과 김정진(멜릭스)·황혜령(빨리나)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 전문의 3인 진료 동대신동역 8번 출구 246-9999	(주)가나안보청기 원산지: 독일 / 청각학 박사 맞춤형상담 가능 교우특별우대. 당일생산 즉석수리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김도현 (모세) 010-7674-2828	내일N성형외과 최수종 (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논,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7(마린명원 2층) / 서구청 옆